

주요개념 : 양육스트레스, 임신의도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와와의 관계

주규영* · 김영선** · 어용숙** · 빅힘숙*** · 전성숙***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란 환경과 상호 관계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지요소에 따라 중요하게 관여하는 정신현상으로 사람이 처한 상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오가실, 1985). 심한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임신과 관계된 합병증 등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최양자와 조결자, 2000).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가진 사람이 자녀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다중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acione, 1994)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이광주, 1988).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은 아이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집안일과 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 신현숙, 1999).

영아란 통상 1세 미만의 아동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 시기는 육아를 맡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에게 도움을 가장 많이 줘야 하는 시기이고 또한 출산으로 인한 산후 조리 및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정상적인 위기로 받아들이는 전환의 시기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상황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는 생존을 위해 변화가 심한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며, 어머니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정서적 관계를 확립하고, 어머니가 되기 이전 수행해 왔던 일련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 통합하기 위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양육의 책임과 더불어 부가적인 증가, 재정적 부담증가, 또는 여가시간의 감소 등 수많은 생활변화가 수반되므로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과학 연구소 전임연구원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주규영 : gych677@hanmail.net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게 된다(Brooten et al., 1988; 김동희, 1997).

임신의도란 임신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임신결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의도된 임신은 영아양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심정하, 1997). 의도된 임신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환이 잘 되어 기쁨과 희열로 반응한다(이은희, 1995). 그러나 의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양육태도형성의 지연과 임신에 대한 체념적 수용(이은희, 1995), 유아거부 및 죄책감,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며(Muhammad, 1994) 양육스트레스 또한 의도된 임신의 경우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업을 가진 여성이 양육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연구결과(서혜영, 1991; 박해미, 1994;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 신현숙, 1999)도 있고 오히려 직업을 가진 여성이 가정과 직장간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덜 심하다는 연구결과(장병욱, 1985)도 있으며 직장을 가진 여성과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 나름대로 자녀양육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연구결과(조혜순, 1997)가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구혜령, 1991; 조혜순, 1996)들도 있어서 배우자의 지지와 함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의 조력자의 지지를 일반적인 특성에서 변수로 고려해 놓았다.

임신의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심정하, 1997)가 있을 뿐 임신의도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를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가족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와 나아가 영아 및 영아모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임신의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영아 및 영아모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및 임신의도를 파악한다.
- 2) 영아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임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3)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임신의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P광역시 S구보건소에 방문하는 출생 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를 가진 영아모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영아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영아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 1)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부모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정원미(1994)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는 아동영역에 속하는 특징으로 활동성, 부모 강화, 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의 6가지가 있었고, 부모 자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특성 영역에는 유능성, 애착, 억압성, 침체성,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의 7가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 사건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아동영역 12문항, 부모 영역 12문항으로 총 24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응답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측정하는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영유아 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정원미(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90으로 나타났고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유일영, 이경자 & 채선미(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였다.

2) 임신의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혜원(1996)의 임신의도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원했던 임신, 계획된 임신, 임신결정을 위한 남편과의 사전동의정도, 유산고려, 임신을 유지하려는 의지정도로 구성된 총 5문항으로 심정하(1997)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문항 4개, 부정적 문항 1개로 구성되는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평정방법으로는 임신의도 각 문항에 "아니다"를 0점, "그렇다"를 1점으로 평정 하여 측정되

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의 점수범위를 나타내는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ronbach's α =.96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10.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영아와 영아모의 일반적인 특성,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2) 영아와 영아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정도와 임신의도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은 <표 1>과 같다.

영아모의 연령은 31세 이상이 53.2%, 30세 이하가 46.7%였으며, 영아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51.6%였고, 대졸이상이 48.4%였다. 영아모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74.2%로 있는 경우 25.8%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71.0%로 없는 경우 29.0%보다 훨씬 많았다. 월수입은 100-149만원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150-199만원과 200-249만원이 각각 21.0%, 250만원 이상이 19.4%였다. 출생순위는 둘째인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첫째가 45.2%, 셋째이상인 경우가 6.4%였다. 아이의 연령은 1-3개월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6-9개월이 24.2%, 3-6개월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24)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나이	30세이하	58	46.7	출생순위	첫째	56	45.2
	31세이상	66	53.2		둘째	60	48.4
학력	고등졸이하	64	51.6		셋째이상	8	6.4
	대졸이상	60	48.4	아이연령	1-3개월	48	38.7
직업	유	32	25.8		3-6개월	28	22.6
	무	92	74.2		6-9개월	30	24.2
종교	유	88	71.0		9개월이상	18	14.5
	무	36	29.0	아이성별	남	60	48.2
월수입	100만원미만	10	8.1		여	64	51.6
	100-149	38	30.6	분만형태	제왕절개	54	43.5
	150-199	26	21.0		자연분만	70	56.5
	200-249	26	21.0	수유형태	모유수유	40	32.3
	250이상	24	19.4		혼합수유	22	17.7
조력자	유	54	43.5		분유	62	50.0
				무	70	56.5	

이 22.6%, 9개월 이상이 14.5%순이었다. 아이의 성별은 여아가 51.6%, 남아가 48.2%였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56.5%, 제왕절개가 43.5%순이었다. 수유형태는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가 32.3%, 혼합수유가 17.7%였다. 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56.5%로 있는 경우 43.5%보다 많았다.

2.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정도 및 임신의도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총 양육스트레스정도는 57.05±13.73점으로 범위는 26점에서 114점까지였다.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

〈표 2〉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문항특성	평균±표준편차
1. 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어서 나를 지치게 한다	2.66± .70
2.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끝내 들어주어야 한다.	2.74± .85
3.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1.63± .58
4.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울고 짜증을 낸다.	2.15± .67
5. 우리 아이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2.37± .73
6. 우리 아이의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나는 매우 화가 난다.	2.24± .72
7.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2.16± .61
8. 우리 아이와 친밀하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98± .76
9. 우리 아이를 위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	2.81± .83
10. 아이를 가진 이후에 시가 식구나 친척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2.35± .96
11.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2.21± .81
12. 우리 아이로 인해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한 적이 거의 없다	1.58± .56
13.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이상 가지고 놀지 못한다	2.55± .84
14.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뛰든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2.06± .62
15. 우리 아이는 가정 주변의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2.10± .72
16. 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2.34± .68

<표 2>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계속)

	문항특성	평균±표준편차
17.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2.15± .65
18.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매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느낀다	2.40± .78
19.	아이를 가진 이후로 부부간에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이 잦다	2.15± .85
20.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2.21± .87
21.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도움이나 충고를 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	2.10± .67
22.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2.89± .99
23.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다	3.03± 1.04
24.	우리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저지시키는 일이 어렵다	2.31± .67
총 문항점수		27.05±13.73

권다는 것은 어렵다'가 3.03±1.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가 2.89±.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아이를 위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가 2.81±.83점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우리 아이로 인해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한 적이 거의 없다'가 1.58±.56점이었다.

대상자의 임신의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총 임신의도는 4.07±1.48점으로 최소 0점에서 5점까지였다. 대상자의 75.8%가 원하는 임신이었으며, 64.5%가 임신을 계획했었고 62.9%의 대상자가 남편과의 사전동의를 하였고 79.0%의 대상자가 유산을 고려한 적이 없었으며 대상자의 77.5%가 임신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정도 및 임신의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정도와 임신의도는 <표 4>와 같다.

양육스트레스정도는 아이의 연령과 출생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3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진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가 63.08±17.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개월 이상이 57.67±8.69점, 3-6개월 미만이 52.36±7.68점, 6-9개월 미만이 51.40±9.76점이었으며(F=3.27, p <.05), 출생순위는 셋째 이상이 64.75±28.90점으로 가장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둘째, 셋째 순위였다(F=4.80, p <.05).

임신의도는 모의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1.48, p <.05),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임신의도 점수가 4.57±.94점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 3.90±1.6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와 관계

<표 3> 대상자의 임신의도

(N=124)

구분	아니오	예	평균±표준편차
	실수(%)	실수(%)	
1. 임신희망	30(24.2)	94(75.8)	83± .39
2. 임신계획	44(35.5)	80(64.5)	71± .46
3. 남편과의 사전 동의	46(37.1)	78(62.9)	72± .45
4. 유산고려*	98(79.0)	26(21.0)	91± .29
5. 임신지속유지	28(22.6)	96(77.4)	89± .31
총계			4.07±1.48

* 역코딩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

특성	구분	양육스트레스		임신의도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모나이	30세이하	58.69±13.99	.881	3.79±1.72	-1.219
	31세이상	55.35±14.99	(.382)	37.01±8.33	(.212)
모학력	고등졸이하	59.81±15.98	1.661	3.87±1.59	-1.183
	대졸이상	54.10±10.31	(.146)	4.33±1.31	(.253)
모직업	유	58.53± 9.38	.444	4.57± .94	1.480*
	무	56.70±15.05	(.659)	3.90±1.60	(.145)
종교	유	55.36±12.90	-1.527	4.00±1.59	-.564
	무	56.59±14.73	(.357)	38.06±9.36	(.575)
월수입	100만원미만	62.59±15.40	.412	4.50± .58	1.917
	100-150미만	55.76±14.54	(.684)	3.34±1.88	(.122)
	150-200미만	58.69±16.16		4.75± .87	
	200-250미만	55.76±8.03		3.92±1.31	
	250이상	55.25±11.10		4.36±1.50	
출생순위	첫째	54.89±15.16	4.804*	4.20±1.44	.687
	둘째	54.93±14.47	(.002)	3.89±1.56	(.507)
	셋째이상	64.75±28.90		5.00± .00	
아이연령	1-3개월	63.08±17.61	3.272*	4.09±1.41	.573
	3-6개월	52.36± 7.68	(.027)	3.92±1.73	(.635)
	6-9개월	51.40± 9.76		3.85±1.68	
	9-12개월	57.67± 8.69		4.71± .76	
아이성별	남	58.00±15.33	.456	4.04±1.46	-.066
	여	56.38±12.49	(.650)	4.07±1.53	(.948)
분만형태	제왕절개	59.11±16.81	1.040	3.91±1.51	-.684
	자연분만	55.46±10.78	(.303)	4.19±1.47	(.496)
수유형태	모유수유	56.75±16.74	.751	4.31±1.25	.604
	혼합수유	61.55±17.68	(.477)	4.27±1.49	(.551)
	분유	55.65± 9.60		3.85±1.61	
조력자	유	58.11±15.27	.532	3.76±1.64	-1.466
	무	56.23±12.58	(.597)	4.35±1.29	(.149)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총 양육스트레스와 총임신의도의 관계는 $r = .027$ 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IV. 논 의

(표 5)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와와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총임신의도	$r = .027(p = .844)$
임신회망	$r = .048(p = .175)$
임신계획	$r = .162(p = .252)$
남편과 사전동의	$r = .002(p = .175)$
유산고려	$r = .111(p = .424)$
임신지속유지	$r = .007(p = .175)$

본 연구대상자는 대부분이 20대와 30대로써 직업을 가지지 않은 영아모가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1명 내지 2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상자의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32.2%로 인공수유를 하는 50%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유수유가 모아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어머니

의 애착지향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인자임을 볼 때(이화자, 2003),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간호사의 교육이 요구된다. 분만형태를 살펴보면 자연분만이 56.5%, 제왕절개분만이 43.5%로 이는 전국자료에 의한 제왕절개분만 37.7%(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과 비교해볼 때 본 지역의 산모가 전국의 산모보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아동과 시간을 적게 보내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는 여성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선행연구(서혜영, 1991; 박해미, 1994)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임신의도는 모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직업을 가진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보다 임신의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여성일수록 임신을 계획하고 남편과 사전동의를 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아이의 연령과 출생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아의 성별, 영아모의 직업, 수입정도, 분만형태, 조력자, 수유형태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영수, 정금희 & 김신정(1990)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분만을 선호하는 고정관념에 의해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 역할 획득 과정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분만 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개월의 순으로 높았다. 어머니의 연령도 스트레스 관련요인으로 나타나는 데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Mercer, 1981; Reece, 1995).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 획득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Walker, Crain & Thompson, 1986; 이은숙, 1988)가 있는 반면, Russell, Hobbs, & Cole(1976)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수입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Affleck, Tennen, Allen & Gershman, 1986;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탁영란과 이희영, 1997).

미숙아의 경우는 아이의 건강상태가 양육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조결자, 정연 & 이군자, 1997; 김동희, 1997) 본 연구는 정상아를 대상으로 하여 총 양육스트레스점수가 57.05 ± 13.73 점(24점에서 12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의도와 양육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으며 심정하(1997)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에서는 임신의도와 양육태도간에 $r=.22$ 로 유의한 약상관관계를 보여 임신의도한 영아모가 양육태도가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직업을 가진 여성이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직업을 가진 여성일수록 임신을 계획하고, 남편과의 사전동의를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정도는 아이의 연령이 적을 경우와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아이의 연령이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수유와 기저귀 갈기, 개월 수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기와 여가시간 및 수면시간 부족 등이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며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갈수록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육아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름대로 가족계획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양육이 단지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지지를 강화시켜 양육스트레스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며 양육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영아의 건강증진과 영아모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정도 및 임신의도를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는 영아 및 영아모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P광역시 S구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영아를 가진 영아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수집은 200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총 양육스트레스정도는 57.05 ± 13.73 점이었으며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다'가 3.03 ± 1.04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가 $2.89 \pm .99$ 점, '우리 아이를 위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가 $2.81 \pm .83$ 점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우리 아이로 인해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한 적이 거의 없다'가 $1.58 \pm .56$ 점이었다.
2. 양육스트레스정도는 아이의 연령과 출생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3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진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가 63.08 ± 17.61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개월 이상이 57.67 ± 8.69 점, 3-6개월 미만이 52.36 ± 7.68 점, 6-9개월 미만이 51.40 ± 9.76 점이었

다. 출생순위는 셋째 이상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임신의도정도는 4.07 ± 1.48 점이었으며, 임신의도는 모의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임신의도 점수가 $4.57 \pm .94$ 점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 3.90 ± 1.60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총 양육스트레스와 총 임신의도의 관계는 $r = -.02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산광역시 1개 구 보건소를 내원 하는 대상자를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이는 변수들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대상자를 추출하여 반복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상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모라는 역할 획득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데, 저출생 체중아를 분만하는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하리라 사료되어 정상아와 저출생체중아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1997). 정삼아어머니와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1996). 초위부의 모성정체성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해미 (1993).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스트레스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

- 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정하 (1997). 영아모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7(2), 454-464.
- 오가실 (1985). 가정의 기능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정박아 가정을 중심으로. 간호학논집, 8, 27-53.
- 유일영 외 (1998). 타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직업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 159-169.
- 이은숙 (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 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1995). 초산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 (1994). 도시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옥 (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위미 (1994). 발달장애아동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결자, 정연, 이군자 (1997).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와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간호요구도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3(1), 5-18.
- 조혜승 (1996).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 최양자, 조결자 (2000). 조기출산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불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4), 493-505.
- 탁영란, 이희영 (1997). 발달장애아동가족의 가족 스트레스, 인지적 사회 지지와 가족 적응. 아동간호학회지, 3(1), 42-51.
- 하영수, 정금희, 김신정 (1990). 어머니 역할 획득 과정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와 건강생활 양식 이행과의 관계. 간호과학, 2, 23-47.
- Abidin R. R. (1990) Parenting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ffleck, G., Tennen, H, Allen, D. A., & Gershman, K. (1986).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ternal adapt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hospital to home care of high-risk infan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7, 6-18.
- Brooten, D., Gennaro, S., Brown, L. P., Gibbon, A. L, Bakewell-Sachs, S., & Kumar, S. P. (1988). Anxiety, Depression and hostility in mother of preterm infants. Nursing research 37(4), 213-216.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Faicone, N. C. (1994). Role overload and health: The married mother in the waged labor forc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5, 157-167.
- Mercer, R. T. (1986). First time Motherhood- Experience from tens to forties. Springer Publishing Co.
- Muhammad, N. B., Ann, L. C. (1994). Maternal attitude toward pregnancy and the neonatal

-
- death. American J. Public Health, 84(3), 411-414.
- Reece, S. M. (1997). Stress and maternal adaptation in first-time mothers more than 35years old. Applied Nursing Research, 8(2), 61-66.
- Russell, C. S., Hobbs, D. F., & Cole, S. P. (1976). Transition to parenthood: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 294-301.
-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 68-71.

ABSTRACT

Key Words : Parenting Stress, Intention of pregnancy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 of Pregnancy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Cho, Gyoo-Yeong* · Kim, Young-Son** · Eo, Yong-Sook**
 Park, Hyoung-Sook*** · Jun, Seong-So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 of pregnancy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Method: The subjects were 124 mothers of infants who visited the public health center during the periods of June 1 to July 31, 2003. Abidin's parenting stress index and Kim's intention of pregnancy were us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age of the normal infants shows that the thirty was 53.2%, the highest. Of religion the buddhism was the most. Infant's sex distribution shows that the male infants was 48.2%, female was 51.6%. Cesarean section distribution was

43.5%, Normal delivery was 56.5%. Milk feeding distribution was 50.5%.

2.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was total 57.05 ± 13.73 .
3. The characteristics variable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was infants's age ($F=3.27, p < .05$), and the characteristics variable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of pregnancy was the mother's occupation ($t=1.48, p < .05$).
4. There was not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pregnancy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Conclusion: Through the study, to increase the health promotion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infants should be a family planning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 Full Time Researcher,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